

주요논문초록

『A형 행동양식 생산직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저 자 : Bo T Flodmark, Grete Aase
출 처 : Br J Ind Med 1992; 49: 683-687

연구목적 : 과도한 경쟁심이 있고 성급하며 적의에 찬 특성을 갖는 A형 행동양식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이미 연구되었다. A형 행동양식과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A형 행동양식 근로자에서 근골격계 증상의 빈도가 더 높은가를 보고자 한다.

연구설계 : 후향성 단면연구. 근골격계 증상의 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Standardised nordic questionnaires)를 사용하였고, A형 행동양식을 평가하기 위해 Bortner 설문지와 척도 1) speed, 2)hard driving and competitiveness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 58명의 생산직 근로자(51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평균 연령은 36.9세, 평균 근무기간은 7년이었다.

연구결과 : A형 성격양식 생산직 근로자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어깨의 통증이 더 많았으며($p < 0.001$), 지난 7일 동안에는 목($p < 0.01$), 어깨의 통증($p < 0.01$)과 요통 증상($p < 0.05$)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나이, 정신사회학적 요인, 또는 정신신체증상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결론 : A형 행동양식의 생산직 근로자는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율이 높은 것 같다.

『직업 유해요인과 은퇴후의 육체적 무능력』

저 자 : Bernard Cassou, Francis Derriennic, Yuriko Iwatsubo, Maurice Amphoux
출 처 :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1992; 46: 506-511

연구목적 : 직업성 유해요인의 폭로에 의한 은퇴후의 육체적 무능력(physical disability)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설계 : 프랑스 파리의 은퇴한 표본 피조사자에 대하여 단면적 역학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 : 가정방문을 통하여 307명의 남자와 329명의 여자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평균 연령은 69세이었다. 직업적 위험요인에 폭로되었던, 되지 않았던간에 근로작업중의 8가지 유해환경요인의 유무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육체적 무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7가지 기본적인 활동수행에서의 어려움으로 정의되었다.

연구결과 : 단일변량 분석결과 작업중의 소음, 고열, 분진,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 등의 직업적 위험요인과 은퇴후의 육체적 무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 성별, 건강장해(health impairment)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다변량분석 결과 중량물 취급과 육체적 무능력은 특별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 이 결과는 직업적 위험요인이 은퇴후의 이와같은 육체적 무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